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나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 CJ인터넷 보안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정보보호

**게임** 브랜드 넷마블로 잘 알려져 있는 CJ인터넷의 보안팀이 본격적으로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다소 늦은 출발을 한 보안팀이지만 정보보호 부서의 체계와 업무 반경, 그리고 목표의식은 뚜렷하다. 그룹차원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원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CJ인터넷 보안팀의 활동에는 임원들이 언제나 동참하고 있다. “정보보호 정책과 사업 운영을 위해 임

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어요, 가령 CTO나 경영지원 본부장이 사내 보안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임원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CJ인터넷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팀 정찬규 팀장은 임원들의 참여로 보안팀의 역량이 단기간 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정보보호는 로열티 고객을 만든다 “보안팀이 활동을 시작할 당시, CJ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돼 있었어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 셈이죠”라는 정 팀장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역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정보보호가 로열티 고객을 만든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은 CJ인터넷 보안팀 활동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철학은 정보보호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지난 2008년 단행한 불필요한 고객정보의 삭제.

지난 2008년 초 CJ인터넷은 고객 정보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 이외에는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고객의 정보 하나하나가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모험'은 예상밖의 행동이다.

“정보보호 관점에서 자율과 책임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정보보호 활동이 단지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 활동은 소극적이고, 업무에 대한 보람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반대라면 더 많은, 더 강화된 정보보호 활동이 가능하지요.” CJ인터넷 보안팀 이재인 과장은 당시 결정은 고객은 물론,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정보보호 일기예보

자발적 보안활동을 모토로 한 CJ인터넷 보안팀은 개인정보보호가 기업들의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 목표를 위해 다시 분주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눈치(?)다. 그것은 무엇일까.

“장기적으로 CJ인터넷만의 정보보호 예·경보 체계를 만들고 싶어요. 흔히 위협관리와 조기경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보보호 예·경보는 보다 능동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 팀장은 그런 의미에서 예·경보체계가 보안시장에서 의미하는 단순한 ESM 도입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이들의 정보보호 예·경보체계는 위협요소가 발견되면 위협요소가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어떤 위협을 가하게 될 지 진단해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부 직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CJ인터넷만의 정보보호 일기예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ESM의 기능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체계는 단순 통합이 아닌 보안 위협요소가 업무 프로세스로 신속히 전이돼 보안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죠”라는 정 팀장은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위협요소와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열심히 하면 분명 그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조차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다고 한다. ‘최선’과 ‘재미’라는 두 단어 사이에는 자율과 능동이라는 의미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CJ인터넷 보안팀의 활동이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활동은 언제나 모범사례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S**



※ 최소한 저희와 같은 기업에게 정보보호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요.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셈이죠. 물론 기업의 정보보호는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해요. **\*\***

CJ인터넷 보안팀 정찬규 팀장은 정보보호 활동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자율적인 규범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